

# 말뭉치를 이용한 ‘당하다’ 구문 연구

이 안 구

---

松 山 大 学  
言語文化研究 第28卷第1号 (抜刷)  
2008年9月

Matsuyama University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28 No. 1 September 2008

# 말뭉치를 이용한 ‘당하다’ 구문 연구

이 안 구 (李 安 九)

## 1. 머리말

‘당하다’는 주로 ‘받다’, ‘되다’와 함께 ‘명사+하다’ 구성에 대한 피동 표현으로서 논의되어 왔다.<sup>1</sup> ‘당하다’는 ‘받다’나 ‘되다’와 비교할 때, 이롭지 않은 경우에 쓰이거나 부정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는데, 정작 ‘당하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표현들과 어울려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는 어떤 표현이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지 목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당하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피는 데에 있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용례를 수집한 말뭉치(코퍼스)의 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어떤 표현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구축한

---

1 한국어 연구에서 ‘당하다’가 피동법과 관련하여 논의되게 된 것은 최현배(1937/1975)에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1937/1975)에서는 ‘하다’에 대하여 입음의 뜻을 나타내는 ‘되다’, ‘받다’, ‘당하다’를 두째 입음법(피동법)으로 기술하였다.

2 우인혜(1997)에서는 ‘당하다’를 ‘하다’ 동사의 피동성 표현으로 다루면서 부록에 ‘하다’ 동사를 구성하는 단어 목록과 함께 ‘되다’, ‘받다’, ‘당하다’와의 결합 여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목록 작성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당하다’와의 결합 여부에 대해 화자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인혜(1997)의 목록에서 ‘당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단어(414개) 중, <세종 균형 말뭉치>에서 실제로 ‘당하다’와 결합하여 쓰이는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40%미만(155개)에 그친다. 한편, 김청자(2003)에서도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선행요소를 검토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1세기 세종계획> 연구·교육용 1,000만 어절 균형 말뭉치(이하 <세종 균형 말뭉치>로 약칭)를 이용하여 ‘당하다’의 용례를 추출하였다.<sup>3</sup>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용례를 분석하여, ‘당하다’가 어떠한 문형으로 실현되며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또한 어떤 표현들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문형과 용법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예문 중에는 ‘당하다’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 조사 결합 구성과 어울려 쓰이는 경우도 있다.<sup>4</sup> 여기에서는 ‘당하다’의 용법에 따라 어떠한 문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예문 (1)은 ‘당하다’가 ‘이겨내다. 맞먹다, 감당하다’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1) 가. 광고 회사는 다 소규모인 걸 허스트를 어떻게 당해 낸단 말이에요.

(<캠퍼스의 비망록 5>, 1987 : 준구어)

나. 어떤 문학가가 아무리 철학적이라 해도 플라톤이나 칸트를 당할 수는 없다.

(이상섭, <문학의 이해>, 1972 : 예술)

다. 그리고 살면서 뭘 느끼냐면 진실한데 당할 것이 없다라는 걸 늘 느껴요.

3 ‘당하다’의 용례 추출을 위해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개발된 용례 검색 프로그램 ‘글잡이’를 이용하였으며, 관련없는 용례는 수작업으로 걸러내어 총 3938개의 예문을 얻을 수 있었다.

4 조사 결합 양상에 대해서는 주요 격조사를 대표로 삼아 제시하며, 보조사나 조사 교체형이 쓰이는 경우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함께 다룬다. 또한 <세종 균형 말뭉치>의 예문을 제시함에 있어 작자와 출전 및 연도를 밝히고, 어느 디렉토리에 속하는지도 함께 밝혀준다. <세종 균형 말뭉치>는 크게 문어와 구어로 나누어지는데, 구어는 다시 순구어와 준구어로 나뉘며, 문어 내에는 예술, 체형기술적 텍스트(이하 ‘다큐’로 약칭), 교육자료(이하 ‘교육’으로 약칭), 총류, 인문, 상상적 텍스트(이하 ‘상상’으로 약칭), 생활, 신문, 자연, 사회 등의 디렉토리가 존재한다.

(〈아침만들기 1995/3/10〉 : 순구어)

라. 서울에서 내려간 청년들이 유형기 씨를 추격하여 습격, 난투극이 벌어졌고, 유씨의 폭력단에 당하지 못한 서울 청년들이 복수에 나서 … (후략)  
(김지용, <보이지 않는 나라>, 1993 : 상상)

‘당하다’가 ‘이겨내다, 맞먹다, 감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1가)처럼 ‘당해내다’의 형태로 실현되거나, ‘당할 수/도리/재간이 없다’, 혹은 ‘못 당하다’ 등의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주로 ‘-(을) 당하다’와 같은 문형으로 실현되는데, (1다), (1라)와 같이 ‘-에게(한테)/에’ 조사 구성과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한편, ‘당하다’는 ‘(이치에) 맞다, 마땅하다, 합당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다음의 예문 (2)와 같이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가. 물론 잡지에 글을 쓰는 것을 꺼려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지당한 이유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당치 않은 이유도 있다. (최정호, <정치와 언어>, 1977 : 총류)
- 나. 고급아파트로 가는데 다 낡은 장롱은 워며 찌그러진 주발이 당키나 하는 거냐. 이야말로 개발의 편자다.  
(채희윤, <한평 구휼의 안식>, 1993 : 상상)

다음으로, ‘당하다’가 ‘때나 형편에 처하다, 겪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 (3) 가. 아마도 춘추전국시대를 당하여 공자는 백성의 해이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필요성 때문에 민요를 300편 추려서 사무사(思無邪)한 것이라고 정의했을 것입니다.

(고은 외, <강좌 민족문학>, 1990 : 예술)

나. 식사를 내용 면에서 보면, 기쁜 일을 당하여 행하는 祝辭와 슬픈 일을 당하여 행하는 弔辭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국어편찬실, <언어와 표현>, 1995 : 교육)

다. 광천이는 국동이 주려고 사탕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조카인 국동이가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오덕 엮음, <이사가던 날>, 1991 : 교육)

라. 얼마나 더 큰 불행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중앙일보 사설 1996/03/03> : 신문)

‘당하다’는 ‘때, 일, 경우, 지경, 처지, 국면’ 등의 단어와 함께 쓰여 ‘때나 형편에 이르다, 처하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3다), (3라)와 같이 ‘사고, 불행’이나 ‘화, 곤란, 비극’ 등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다.

한편, ‘당하다’는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 (4)는 ‘외면(을) 당하다’의 표현이 ‘-에게(한테),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 등의 조사 결합 구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4) 가.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면 뿌리뽑힌 인생이 되고 마는 걸까. (유기성, <아름다운 그 시작>, 1994 : 상상)

나. 사실 고대구리나 선망 어선이나 어자원을 고갈시키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한쪽은 법의 보호를 받고 힘이 있으며, 한쪽은 법에 외면당하고 힘이 없는 차이뿐이다. (현격준 외, <바다가 부르는 소리>, 1995 : 상상)

다. 그래서 디알도스 등 새로운 운영 체제들이 등장했는데, 엠에스도스와 호환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사용자들한테서 외면당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2/08/08> : 신문)

라. 결과적으로 OS/2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응용

프로그램의 부족 또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더 부채질했다.

(안철수 외, <칼럼모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CD>, 1994 : 과학)

마. 1950년대까지 초기진화론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외면당해 왔으나 2차 대전 후 인류학계내에서 이론화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주창되자 진화론 논의가 부활되었다. (강만길 외, <한국사>, 1994 : 인문)

‘당하다’가 ‘서술성 명사+하다’ 구성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4나), (4다), (4마)에서와 같이 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서술성 명사와 ‘당하다’가 직접 결합하여 쓰이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의 ‘당하다’는 사전에서 접미사로 처리되기도 한다.<sup>5</sup> 그리고, (4가)–(4마)에서 조사 ‘-에게(한테),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와 결합하여 쓰인 표현들은 각각 ‘외면(을)하다’라는 행위에 대한 주체(행위주, 능동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하다’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에게(한테),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 등의 조사 결합 구성과 함께 실현되더라도 명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주체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문 (5)를 보기로 한다.

(5) 가. 이것은 유대인이 毒개스室에서 독일 나치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직전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린 것인데 그는 이 음악으로 악덕한 히틀러에게 항거한 것이다. (<월간중앙 1977/02> : 사회)

가’. 장명수, 장명수라는 인물이 운동권 학생인데도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다. (김지용, <보이지 않는 나라>, 1993 : 상상)

나. 양심수와 수배자들은 군사 정권 시절의 반민주 악법에 희생당한 사람들인 만큼 새정부의 시혜물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서 수배 해제

5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과 같은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대개 접미사로서의 ‘당하다’를 인정하고 있다. ‘당하다’의 사전 기술에 대해서는 졸고(2008)에서 다룬 바 있다.

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1993/02/25> : 신문)

다. 나는 국가의 대행자들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괴로움을 당한 적은 없다. (한국수필진흥연구회, <수필공원 94년 봄호> : 다큐)

라. 정원식 총리 서리가 외국어대생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다음날인 4일 오전 이강혁 외대 총장은 교수와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총리실을 찾아 백배 사죄했다. (<동아일보 1991/06/05> : 신문)

마. 양반들은 자위비밀결사인 살인계 때문에 왜(倭)를 통해 동래로 들어오는 조총 등으로 자위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살인계원인 노비에 의해 양반이 피살당했을 경우에도 보복이 두려워 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었다. (강만길 외, <한국사>, 1994 : 인문)

(5가)-(5마)의 예들은 ‘-(을) 당하다’ 구성이 각각 ‘-에게서(한테),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 등의 조사 결합 구성과 함께 실현되는 경우이다. (5가)와 (5가’)을 비교해 볼 때, (5가’)에서 ‘경찰’은 ‘죽이다’라는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으나 (5가)에서 ‘나치들’은 ‘죽다’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5나)-(5마)의 경우 역시 조사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와 결합한 표현들은 ‘희생, 괴로움, 수모, 피살’에 대한 주체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4)와 (5)의 예문들을 비교해 볼 때, (4)의 ‘외면’은 ‘외면하다’와 ‘외면당하다’ 사이에 능동-피동의 관계가 성립하는 데에 비해, (5)의 ‘죽음, 희생, 괴로움, 수모, 피살’과 같은 경우에는 ‘하다-당하다’의 능동-피동 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5라)의 ‘수모(受侮)’나 (5마)의 ‘피살(被殺)’은 ‘被, 受’와 같은 한자가 쓰여 그 자체로 피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이다.<sup>6</sup>

한편, 다음의 예문 (6)의 ‘당하다’는 ‘피해를 입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6 (4)-(5)의 예와 같은 ‘당하다’ 구문은 ‘피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피동을 의미적인 범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4)와 (5)의 예문들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법적인 측면

- (6) 가. 일제 때는 일제 때라 왜놈들에게 당하고 8·15 뒤에는 또 금력이나 권력 앞에 맥을 못 चु니 생고기 배나 따 먹는 뱃놈들은 어느 세월에 주인 노릇을 해본단 말인가. (엄홍섭 외, <잠자는 갈매기>, 1995 : 상상)
- 나. 6·25는 물론 60년대 金新朝 사건, 80년대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한은 거듭거듭 북한에 당해 왔다. (<월간조선 158호>, 1993/05 : 사회)
- 다. 고유가가 되면 일본과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데 일본은 유가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1990/08/12> : 신문)

(6)과 같은 용법이 쓰이게 된 것은 ‘당하다’가 예문 (5)와 같이 부정적 상황이나 피해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일이 많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sup>7</sup> ‘당하다’가 이러한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6가), (6나)와 같이 ‘-에게/에’ 조사 구성과 함께 실현되는 일이 많으며, (6다)처럼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당하다’의 용법으로 ‘이겨내다. 맞먹다, 감당하다’, ‘(이치에) 맞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때나 형편에 처하다, 겪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피동이나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에서 전형적인 피동문의 특징으로는, 대당 능동문이 성립하고 행위주(능동주)가 실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4)의 ‘외면(을) 당하다’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볼 수 있다. (5가)의 ‘죽임(을) 당하다’의 경우는 (4)의 ‘외면(을) 당하다’처럼 ‘하다-당하다’의 능동-피동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역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피동문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5)의 ‘[죽음, 희생, 괴로움, 수모, 피살](을) 당하다’의 경우는 ‘하다’와 결합하여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으며, ‘-에게, -에, -에게서(한테서), -로부터, -에 의해’ 등의 조사가 결합한 표현을 행위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피동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동을 문법적인 범주로 보는 입장 중 임홍빈(1978), 우인혜(1997), 최형강(2006), 남수경(2007) 등은 ‘당하다’와 ‘하다’가 규칙적으로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4)-(5)와 같은 ‘당하다’ 구성 자체를 문법적 피동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졸고(2008)에서 언급하였듯이 (6)과 같은 용법은 199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사전에서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용법이 쓰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어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예문 중에는 ‘당하다’가 명사 표현과 결합하여 ‘때나 형편에 처하다, 꺾다’의 의미로 쓰이거나 피동 혹은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는 ‘당하다’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명사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3.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명사 + 당하다’ 구성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예문 중 ‘당하다’가 명사 표현과 함께 실현되는 경우는 전체 용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하다’와 함께 나타나는 명사 표현은 총 686종이며, 전체 빈도수는 3398로 파악된다. 다음의 (7)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한자어 명사는 573종,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113종으로,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 중 한자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빈도수에서도 한자어 명사의 총 빈도수는 2892,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의 전체 빈도수는 506으로, 한자어 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7) ‘당하다’와 함께 나타나는 명사 표현

	한자어 명사 표현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	전체
종류	573(83.53%)	113(16.47%)	686(100%)
빈도수	2892(85.11%)	506(14.89%)	3398(100%)

다음에서는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을 한자어와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으로 나누어 빈도수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빈도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함께 묶어 제시하고, 10 이하의 경우는 각각 나누어 가짓수와 빈도수를 제시한다.

## (8)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의 빈도수별 분류

빈도수	한자어 명사 표현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		전체 명사 표현	
	가짓수	빈도수	가짓수	빈도수	가짓수	빈도수
10 이상	67	1694	7	291	74	1985
9	4	36	2	18	6	54
8	13	104	2	16	15	120
7	14	98	0	0	14	98
6	14	84	3	18	17	102
5	28	140	4	20	32	160
4	39	156	5	20	44	176
3	41	123	8	24	49	147
2	104	208	17	34	121	242
1	249	249	65	65	314	314
총계	573	2892	113	506	686	3398

먼저,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 중 빈도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모두 74종인데, 그 중 한자어가 아닌 명사 표현은 7종에 불과하다. 빈도수 10 이상의 한자어 명사 표현 67종의 총 빈도수는 1694로, 한자어 전체 빈도수의 절반을 넘어선다.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 역시 빈도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7종에 불과하나 총 빈도수는 291로,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 전체 빈도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에 비해, ‘당하다’와 함께 실현되는 빈도수가 1인 경우는 한자어 명사가 총 249종, 한자어 이외의 명사 표현이 총 65종으로, 각각 전체 가짓수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당하다’와 자주 어울려 쓰이는 명사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9)는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 중 빈도수 10 이상의 것들을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sup>8</sup>

8 빈도수 9 이하의 명사 표현들의 목록은 권말에 부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9) ‘당하다’와 함께 실현되는 빈도가 10 이상인 경우

명사		빈도수	명사		빈도수	명사		빈도수
일		114	이용	利用	27	경우	境遇	14
사고	事故	98	피해	被害	27	상	喪	14
죽음		82	불이익	不利益	26	유린	蹂躪	14
고문	拷問	78	억압	抑壓	25	고초	苦楚	13
강요	強要	67	끝		23	배반	背反	13
고통	苦痛	67	해고	解雇	23	압도	壓倒	13
폭행	暴行	62	부상	負傷	22	이주	移住	13
희생	犧牲	50	수난	受難	22	파괴	破壞	13
망신	亡身	49	착취	搾取	22	폭격	爆擊	13
거절	拒絕	46	창피	猖披	22	해직	解職	13
수모	受侮	46	추방	追放	22	침략	侵略	12
변	變	39	구타	毆打	21	조치	措置	11
외면	外面	38	학살	虐殺	21	체포	逮捕	11
무시	無視	35	따돌림		21	괴로움		11
봉변	逢變	34	납치	拉致	19	멸망	滅亡	10
도난	盜難	32	욕	辱	19	몰수	沒收	10
취급	取扱	32	강간	強姦	18	습격	襲擊	10
구속	拘束	31	암살	暗殺	18	압수	押收	10
퇴학	退學	31	총살	銃殺	17	위협	威脅	10
죽임		30	고발	告發	16	조난	遭難	10
처형	處刑	29	무안	無顏	16	추궁	追窮	10
사기	詐欺	28	하선	下船	16	포위	包圍	10
모욕	侮辱	27	사형	死刑	15	혹사	酷使	10
배신	背信	27	점령	占領	15	놀림		10
소외	疎外	27	정복	征服	15	소계		1985

(9)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하다’와 빈번히 결합하는 명사 표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이나 이롭지 않은 경우, 피해 등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으며, ‘당하다’와 함께 쓰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다음의 4장에서는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한자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적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4.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한자어 - 한자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른 분류 -

한국어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당하다’와 자주 어울려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당하다’의 경우, 부정적 상황이나 피해 등의 의미와 관련되는 한자어 명사 표현과 어울려 쓰이는 일이 많은데, <세종 균형 말뭉치>에서 ‘당하다’와 함께 실현되는 한자어들을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끼리 모아 분류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그 기초적 시도로서 <세종 균형 말뭉치>에서 ‘당하다’와 함께 쓰이는 한자어 중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들이 반복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묶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0) 죽이다, 죽다 [戮/殺/死]

도륙 屠戮	병살 併殺	타살 打殺	압살 壓殺	압사 壓死
살육 殺戮	사살 射殺	피살 被殺	몰살 沒殺	폭사 暴死
살인 殺人	암살 暗殺	학살 虐殺	몰사 沒死	사사 賜死
살해 殺害	주살 誅殺	묵살 默殺	전사 戰死	감전사 感電死
교살 絞殺	참살 慘殺	총살 銃殺	즉사 卽死	안락사 安樂死
독살 毒殺	척살 刺殺	살상 殺傷	비명횡사 非命橫死	

##### (11) 치다 [擊/襲/攻/侵/打]

격추 擊墜	폭격 爆擊	기습 奇襲	침공 侵攻	타도 打倒
격침 擊沈	총격 銃擊	피습 被襲	침략 侵略	타살 打殺
격퇴 擊退	추격 追擊	엄습 掩襲	침범 侵犯	강타 強打
공격 攻擊	일격 一擊	공습 攻襲	침탈 侵奪	구타 毆打
반격 反擊	저격 狙擊	역공 反攻	침해 侵害	난타 亂打
사격 射擊	습격 襲擊	협공 挾攻	외침 外侵	연타 連打
요격 邀擊				

##### (12) 누르다 [壓/抑/制/押]

압도 壓倒	압살 壓殺	억류 抑留	제재 制裁	차압 差押
압력 壓力	진압 鎮壓	강제 強制	제지 制止	압류 押留
압박 壓迫	탄압 彈壓	규제 規制	제한 制限	압수 押收
압사 壓死	억압 抑壓	제압 制壓	제약 制約	

##### (13) 막다, 거스르다, 끊다 [止/拒/逆/反/絶/斷]

제지 制止	정지 停止	역습 逆襲	거절 拒絕	절단 切斷
중지 中止	거부 拒否	반역 反逆	단절 斷絶	중단 中斷

해지 解止	거역 拒逆	반격 反擊	절연 切緣	차단 遮斷
금지 禁止	역공 逆攻	반대 反對	의절 義絶	
저지 沮止	역전 逆轉	배반 背反		

## (14) 물리치다, 없애다, 쫓다, 내치다 [退/却/排/除/追/出/解/免/罷]

퇴거 退去	퇴학 退學	공제 控除	추격 追擊	해방 解放
퇴교 退校	격퇴 擊退	삭제 削除	전출 轉出	해산 解散
퇴사 退社	자퇴 自退	제대 除隊	차출 差出	해임 解任
퇴장 退場	후퇴 後退	제명 除名	추출 逐出	해제 解除
퇴정 退廷	탈퇴 脫退	제적 除籍	호출 呼出	해지 解止
퇴직 退職	각하 却下	추궁 追窮	출교 出校	해체 解體
퇴진 退陣	기각 棄却	추방 追放	적출 摘出	면직 免職
퇴출 退出	배척 排斥	추월 追越	해직 解職	파면 罷免
퇴원 退院	배제 排除	추징 追徵	해고 解雇	파직 罷職

## (15) 잃다, 없어지다, 지다 [失/損/滅/亡/敗]

실격 失格	실패 失敗	파손 破損	멸망 滅亡	분패 憤敗
실연 失戀	상실 喪失	훼손 毀損	망신 亡身	연패 連敗
실절 失節	유실 遺失	손상 損傷	패망 敗亡	참패 慘敗
실점 失点	손실 損失	전멸 全滅	패전 敗戰	판정패 判定敗
실직 失職	손재 損財	멸문 滅門	패배 敗北	패 敗
실각 失脚	손해 損害			

## (16) 거두다, 빼앗다, 차지하다 [徵/收/取/掠/奪/占]

징발 徵發	흡수 吸收	수탈 收奪	사취 詐取	침탈 侵奪
징병 徵兵	매수 買收	수취 收取	착취 搾取	점령 占領
징수 徵收	몰수 沒收	취급 取扱	탈취 奪取	점유 占有
징용 徵用	압수 押收	취소 取消	약취 掠取	강점 強占
징집 徵集	징수 徵收	취재 取材	약탈 掠奪	독점 獨占
추징 追徵	환수 還收	취조 取調	검탈 劫奪	선점 先占
수용 收容	회수 回收	강취 強取	박탈 剝奪	

## (17) 잡아 가두다, 묶다 [禁/拘/束/縛/捕]

감금 監禁	구금 拘禁	구속 拘束	속박 束縛	포박 捕縛
연금 軟禁	구인 拘引	단속 團束	결박 結縛	체포 逮捕
금족 禁足				

## (18) 보다, 살피다 [視/檢/査]

감시 監視	멸시 蔑視	백안시 白眼視	검열 檢閱	조사 調査
경시 輕視	무시 無視	검증 檢證	검사 檢査	사찰 査察
팔시 眊視	문제시 問題視	검색 檢索		

(19) 알리다 [告/訴]

고소 告訴	무고 誣告	제소 提訴	참소 讒訴	기소 起訴
고발 告發	신고 申告			

(20) 묻다, 꾸짖다, 경계하다 [問/責/叱/懲/戒]

형문 刑問	질문 質問	질책 叱責	응징 膺懲	징계 懲戒
고문 拷問	문책 問責	질다 叱咤	징벌 懲罰	훈계 訓戒
신문 訊問				

(21) 형벌 [刑/罰]

궁형 宮刑	유형 流刑	사형 死刑	화형 火刑	벌금 罰金
극형 極刑	참형 斬刑	악형 惡刑	형벌 刑罰	징벌 懲罰
교수형 絞首刑	처형 處刑	태형 笞刑	형문 刑問	처벌 處罰
총살형 銃殺刑				

(22) 부끄러움, 욕, 업신여김, 놀림 [恥/辱/侮/蔑/弄]

수치 羞恥	능욕 凌辱	모욕 侮辱	경멸 輕蔑	희롱 戲弄
치욕 恥辱	봉욕 逢辱	견모 見侮	멸시 蔑視	번롱 翻弄
곤욕 困辱	오욕 汚辱	수모 受侮	조롱 嘲弄	우롱 愚弄
굴욕 屈辱	수욕 羞辱	모멸 侮蔑		

(23) 피해, 재난, 상처 [害/災/傷]

박해 迫害	위해 危害	수해 水害	재앙 災殃	손상 損傷
방해 妨害	침해 侵害	재해 災害	살상 殺傷	외상 外傷
살해 殺害	피해 被害	수재 水災	상처 傷處	중상 重傷
손해 損害	해 害	산재 産災	부상 負傷	
시해 弑害	한해 寒害	한재 旱災		

(24) 어려움, 괴로움, 어지러움, 위태함 [難/苦/困/禍/亂/變/危]

곤란 困難	난파 難破	곤경 困境	난세 亂世	변고 變故
환난 患難	해난 海難	곤욕 困辱	난리 亂離	변괴 變怪
도난 盜難	고난 苦難	곤혹 困惑	변란 變亂	봉변 逢變
수난 受難	고역 苦役	참화 慘禍	정변 政變	위기 危機
위난 危難	고초 苦楚	화 禍	참변 慘變	위험 危險
재난 災難	고통 苦痛	필화 筆禍	흉변 凶變	위해 危害
조난 遭難	산고 産苦	화난 禍難	천재지변 天災地變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종 균형 말뭉치>에서 ‘당하다’와 함께 실현되는 한자어들 중에는 ‘죽이다, 죽다[戮/殺/死]’, ‘치다[擊/襲/攻/侵/打]’, ‘누르다

[壓/抑/制/押]’, ‘막다, 거스르다, 끝다[止/拒/逆/反/絶/斷]’, ‘물리치다, 없애다, 쫓다, 내치다[退/却/排/除/追/出/解/免/罷]’, ‘잃다, 없어지다, 지다[失/損/滅/亡/敗]’, ‘거두다, 빼앗다, 차지하다[徵/收/取/掠/奪/占]’, ‘잡아 가두다, 묶다[禁/拘/束/縛/捕]’, ‘보다, 살피다[視/檢/查]’, ‘알리다[告/訴]’, ‘묻다, 꾸짖다, 경계하다[問/責/叱/懲/戒]’, ‘형벌[刑/罰]’, ‘부끄러움, 욕, 업신여김, 놀림[恥/辱/侮/蔑/弄]’, ‘피해, 재난, 상처[害/災/傷]’, ‘어려움, 괴로움, 어지러움, 위태함[難/苦/困/禍/亂/變/危]’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쓰이는 것들이 많으며, 이러한 한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당하다’는 ‘속이다[詐/欺: 사기(詐欺), 사취(詐取), 기만(欺瞞)]’, ‘으르다[脅/劫: 위협(威脅), 협박(脅迫), 겁박(劫迫), 겁간(劫姦)]’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나 ‘强[강간(强姦), 강도(强盜), 강요(强要), 강점(强占), 강제(强制), 강취(强取), 강타(强打)]’, ‘不[불상사(不祥事), 불신(不信), 불운(不運), 불이익(不利益), 불평등(不平等), 불행(不幸), 부조리(不條理)]’ 등의 한자가 쓰인 한자어와도 자주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용례를 분석하여 ‘당하다’의 문형과 용법, 그리고 ‘당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당하다’의 용법 중 ‘이겨내다. 맞먹다, 감당하다’, ‘때나 형편에 처하다, 꺾다’, ‘(이치에) 맞다, 마땅하다, 합당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한자 ‘當’의 용법과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나<sup>9</sup> ‘당하다’가 피동이나 피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한자 ‘當’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당하다’의 용법 변화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

9 이 밖에도 <세종 균형 말뭉치>에 나타나는 ‘당하다’의 용례 중에는 한자 ‘當’의 용법과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옛스러운 어투의 문장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일부 예를 들어 두기로 한다.

요가 있다. 또한, ‘당하다’와 함께 ‘하다’에 대한 피동 표현으로 다루어지는 ‘받다’, ‘되다’의 경우에 대해서도 ‘당하다’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용례를 수집한 말뭉치의 이용은 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지니지만, 인간의 언어 사용 양상의 일부분을 보여줄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세종 균형 말뭉치>는 1000만 어절이라는 방대한 규모를 지니지만, 그 중에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당하다’와 자주 어울려 쓰이는 명사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방대한 규모를 지니는 말뭉치라 하더라도 모든 실현 가능한 용례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존의 자료들이나 모어 화자의 직관 등을 활용하여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보다 대규모의 균형 잡힌 말뭉치를 이용하게 된다면 더욱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1) 가. 임경업을 생각하니 젊은 날에 대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생각난다. “삼척의 보검은 만 권의 서적에 당하도다. (후략)” (이오덕 엮음, <이사가던 날>, 1991 : 교육) 나. 그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당하리라고 최후의 결심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강경애, <인간문제>, 1992 : 상상)

- 다. 이리하여 인생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같이 되는 듯 보이면서도, 사실 그 결말에 당하고 보면 전혀 다른 괴물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요술사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1977 : 다큐)

- 라. 시험 때는 당하여 오고 미구에 과세(過歲)를 하려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환이 있는 집에다 대고 철없이 돈 청구만 할 수도 없어 걱정인 판에 마침생광스럽다.

(염상섭, <만세전>, 1987 : 상상)

- 마. 무슨 죄든지 다 당하겠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데려다 처형해라.

(서정주, <미당자서전2>, 1994 : 다큐)

(가)는 ‘맞먹다. 해당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나)는 ‘감당하다’, (다)와 (라)는 ‘이르다, 당도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한자 ‘當’의 용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의 ‘당하다’ 역시 ‘當罪’라는 한문 표현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lt;참고 문헌&gt;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원경(2007), 피동은 문법범주인가, 한국어학 35.
- 김청자(2003), 《국어 피동 타동사 구문 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성광수(1976), 국어의사피동문, 관동대학논문집 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이안구(2008), ‘당하다’의 사전 기술에 대하여, 松山大學 言語文化研究 27-2.
- 이정택(2004), 《현대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 이정택·기타무라다다시·전나영(2005), 韓·日語 피동 범주 대조 및 일본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범주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육 116.
- 임홍빈(1977), 피동성과 피동구문, 논문집(국민대학교) 12.
- 임홍빈(1978), 국어 피동화의 통사와 의미, 진단학보 46.
- 최현배(1937/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최형강(2006), 피동문의 조건과 ‘받다, 당하다, 되다’ 구문의 재고, 어문학 92.
- 北村唯司(2004), 《한국어 피동 표현 연구》, 제이앤씨.

\* 본 연구는 2007년도 松山大學 教育研究助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부록] ‘당하다’와 함께 실현되는 빈도수가 9 이하인 경우의 명사 표현

(1) [빈도수 9] (6종)

고난 苦難	공격 攻擊	배척 排斥	우롱 愚弄	괴롭힘
매질				

(2) [빈도수 8] (15종)

감시 監視	강도 強盜	기습 奇襲	미행 尾行	박탈 剝奪
정지 停止	조작 操作	징용 徵用	차별 差別	참패 慘敗
퇴장 退場	폭력 暴力	화 禍	어려움	부끄러움

(3) [빈도수 7] (14종)

결박 結縛	농락 籠絡	매수 買收	불행 不幸	수색 搜索
약탈 掠奪	잠식 蠶食	지경 地境	차단 遮斷	처분 處分
추월 追越	패배 敗北	해제 解除	화형 火刑	

(4) [빈도수 6] (17종)

감금 監禁	거세 去勢	고소 告訴	곤란 困難	굴욕 屈辱
금지 禁止	낭패 狼狽	멸시 蔑視	봉욕 逢辱	설득 說得
세뇌 洗腦	중단 中斷	탈취 奪取	피살 被殺	난도질
설움	테러			

(5) [빈도수 5] (32종)

기만 欺瞞	매도 罵倒	매장 埋藏	면직 免職	묵살 默殺
보복 報復	비극 悲劇	손상 損傷	수탈 收奪	실연 失戀
연패 連敗	유배 流配	재난 災難	제적 除籍	진압 鎮壓
질식 窒息	징계 懲戒	참변 慘變	참수 斬首	추격 追擊
치욕 恥辱	침범 侵犯	파문 破門	파혼 破婚	해산 解散
훼손 毀損	희롱 戲弄	날치기	소매치기	손가락질
우세	가혹행위 苛酷行爲			

(6) [빈도수 4] (44종)

경멸 輕蔑	괄시 挾視	구금 拘禁	난파 難破	면박 面駁
문책 問責	방해 妨害	복수 復讐	봉쇄 封鎖	삭제 削除
살인 殺人	삼진 三振	소박 疏薄	소환 召喚	속박 束縛
손해 損害	수용 收容	시련 試鍊	시형 試練	이혼 離婚
일격 一擊	저격 狙擊	정간 停刊	정학 停學	제소 提訴

제약 制約	좌절 挫折	집행 執行	철거 撤去	추징 追徵
퇴출 退出	파산 破産	패 敗	폐간 廢刊	학대 虐待
해임 解任	해체 解體	횡액 橫厄	효수 梟首	속임수
조리돌림	주먹질	치도곤	대질	

## (7) [빈도수 3] (49종)

강점 強占	강판 降版	굴복 屈服	기소 起訴	도적 盜賊
독살 毒殺	독점 獨占	매료 魅了	몰살 沒殺	박대 薄待
박해 迫害	배제 排除	봉적 逢賊	불신 不信	사살 射殺
사대 事態	살해 殺害	수치 羞恥	숙청 肅淸	연금 軟禁
연행 連行	운명 運命	유급 留級	절단 切斷	제압 制壓
제지 制止	조롱 嘲弄	조처 措處	지배 支配	질문 質問
징수 徵收	처벌 處罰	치패 致敗	파면 罷免	피폭 被爆
핍박 逼迫	행동 行動	행패 行悖	협박 脅迫	형벌 刑罰
회유 懷柔	노릇	돌림	발길질	버림
슬픔	시달림	업신여김	칼질	

## (8) [빈도수 2] (121종)

감봉 減俸	감전 感電	강제 強制	강타 強打	검색 檢索
격리 隔離	격추 擊墜	격침 擊沈	공습 攻襲	교살 絞殺
교수형 絞首刑	구박 驅迫	궁형 宮刑	금족 禁足	급살 急煞
기피 忌避	난리 亂離	난타 亂打	노락 擄掠	능욕 凌辱
도륙 屠戮	마취 麻醉	모멸 侮蔑	몰사 沒死	방색 防塞
백안시 白眼視	복사 複寫	부정 否定	비교 比較	비육 肥育
사건 事件	사육 飼育	사찰 查察	사취 詐取	산고 産苦
산재 産災	살상 殺傷	상실 喪失	상처 傷處	선동 煽動
수장 水葬	실각 失脚	실격 失格	실험 實驗	압력 壓力
압박 壓迫	압살 壓殺	역공 反攻	역습 逆襲	역전 逆轉
연타 連打	외침 外侵	위난 危難	위험 危險	유괴 誘拐
유형 流刑	유혹 誘惑	장폐 杖斃	재앙 災殃	저지 沮止
적출 摘出	전출 轉出	제한 制限	조사 調查	조종 操縱
좌천 左遷	중상 重傷	증장 重杖	중지 中止	지적 指摘
징발 徵發	징벌 懲罰	징병 徵兵	징집 徵集	참사 慘事
참살 慘殺	참화 慘禍	처지 處地	총살형 銃殺刑	추행 醜行
축출 逐出	취조 取調	침해 侵害	타도 打倒	탄압 彈壓
퇴직 退職	투옥 投獄	파악 把握	판정패 判定敗	패전 敗戰
포박 捕縛	표류 漂流	함락 陷落	합병 合併	해방 解放
혁명 革命	현실 現實	현혹 眩惑	형문 刑問	호출 呼出
호환 虎患	환난 患難	횡포 橫暴	흉변 凶變	구박

다스림	도둑	뒤짐	매타작	베임
보쌈	부림	뿌리침	아웃	억올함
육이오	줄초상	찜질	토색질	툽질
흔찌검				

(9) [빈도수 1] (314종)

각하 却下	강전사 感電死	강취 強取	개간 開墾	개명 改名
거부 拒否	거역 拒逆	검사 檢査	검열 檢閱	검증 檢證
겁간 劫姦	겁탈 劫奪	격퇴 擊退	견모 見侮	결과 結果
경시 輕視	경원 敬遠	고역 苦役	곤경 困境	곤욕 困辱
곤혹 困惑	골절상 骨折傷	공제 控除	과세 課稅	관통 貫通
교체 交替	구인 拘引	국면 局面	굴종 屈從	궁색 窮塞
규제 規制	규탄 糾彈	극형 極刑	기각 棄却	기일 忌日
나수 拿囚	낙척 落拓	난세 亂世	난자 亂刺	남북 拉北
논죄 論罪	뇌쇄 惱殺	능지 凌遲	단속 團束	단절 斷絶
대접 待接	도발 挑發	도전 挑戰	도청 盜聽	도취 陶醉
도대 淘汰	마비 麻痺	마찰 摩擦	말세 末世	매혹 魅惑
멸문 滅門	모독 冒瀆	모략 謀略	모함 謀陷	몰락 沒落
وغ고 誣告	문제 問題	문제시 問題視	문제점 問題點	미봉 彌縫
반격 反擊	반대 反對	반역 反逆	발각 發覺	방화 放火
번롱 翻弄	번민 煩悶	벌금 罰金	변경 變更	변고 變故
변괴 變怪	변란 變亂	변신 變身	변질 變質	병살 併殺
봉패 逢狼	부여 付與	부조리 不條理	분패 憤敗	불상사 不祥事
불운 不運	불평등 不平等	비난 批難	비운 悲運	사격 射擊
사사 賜死	사설 辭說	사역 使役	사임 辭任	삭발 削髮
살년 殺年	살육 殺戮	삼투 滲透	상황 狀況	선점 先占
설분 雪憤	소모 消耗	손실 損失	손재 損財	송사 訟事
수배 手配	수술 手術	수욕 羞辱	수재 水災	수취 收取
수해 水害	순간 瞬間	순교 殉敎	시해 弑害	신고 申告
신문 訊問	실절 失節	실점 失點	실직 失職	실패 失敗
심판 審判	악용 惡用	악형 惡刑	안락사 安樂死	압류 押留
압사 壓死	아료 惹鬧	약취 掠取	약화 弱化	양단 兩斷
억류 抑留	오욕 汚辱	오인 誤認	왜곡 歪曲	외상 外傷
요격 邀擊	원찬 遠竄	원한 怨恨	위기 危機	위축 萎縮
위해 危害	유보 留保	유실 遺失	유인 誘引	육시 戮屍
윤간 輪姦	응징 膺懲	의절 義絶	이발 理髮	이별 離別
이송 移送	이유 離乳	인수 引受	자퇴 自退	장애 障礙
재해 災害	적몰 籍沒	전멸 全滅	전복 顛覆	전사 戰死
전역 轉役	절연 切緣	점유 占有	정변 政變	정사 情事

정죄	定罪	제대	除隊	제명	除名	제재	制裁	조소	嘲笑
좌초	坐礁	주살	誅殺	즉사	卽死	지명	指名	질책	叱責
질다	叱咤	차압	差押	차출	差出	참	斬	참상	慘狀
참소	讒訴	참형	斬刑	처리	處理	척살	刺殺	촉구	促求
총격	銃擊	최면	催眠	추락	墜落	축척	黜斥	춘사	椿事
출교	出校	취소	取消	취재	取材	취체	取締	침공	侵攻
침몰	沈沒	침탈	侵奪	타살	打殺	탄핵	彈劾	탈퇴	脫退
태장	笞杖	태형	笞刑	퇴거	退去	퇴교	退校	퇴사	退社
퇴원	退院	퇴정	退廷	퇴진	退陣	파선	破船	파손	破損
파옥	破獄	파직	罷職	패망	敗亡	평	貶	평가	評價
폭사	暴死	폭파	爆破	풍자	諷刺	피습	被襲	피폐	疲弊
필화	筆禍	한재	旱災	한해	寒害	해	害	해난	海難
해지	解止	협공	挾攻	형세	形勢	호령	號令	화난	禍難
환경	環境	환수	還收	회수	回收	횡령	橫領	후퇴	後退
훈계	訓戒	훼절	毀折	흡수	吸收	이중고	二重苦	양란	兩亂
강제급식	強制給食			강제사임	強制辭任		비명횡사	非命橫死	
인신매매	人身賣買			경술국치	庚戌國恥		임진왜란	壬辰倭亂	
경술국망	庚戌國亡			천재지변	天災地變		춘추전국시대	春秋戰國時代	
危急함	가짐	가위질	고자질	고비	골림				
꺾기	꼬임	꾸중	꾸지람	꾸짖음	나무람				
내침	놀람	닥달	담금질	데모	도둑질				
돌림빱	돼지몰이	뒷걸박	드잡이	떠남	린치				
먹칠	먹힘	메스	목매기	못당할 짓	못질				
롯데	벗김	부대낌	부정치기	부추김	비꼼				
비웃음	빚추심	빠추림	속임	손찌검	승강이				
시집살이	실랑이	쓰러짐	쓴맛	억눌림	얼차려				
영금	웁김	인터뷰	자리바뀜	장난질	지옥살이				
지옥생활	지짐	짓눌림	쪼들림	쫓김	초주검				
칼부림	되짜	푸대접	하이재킹	해침					